



2013 12 월 5 일

주한호주대사관

## 한호 자유무역협정 타결

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오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.

앤드류 롭 통상·투자 장관은 토니 애벗 총리에게 한국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발리 회담에 이어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보고하였다.

이번 협상 타결은 탁월한 성과로 양국 관계에 있어 큰 도약을 의미한다. 양국간의 교역은 연간 320 억 호주 달러에 달하며 매우 상호보완적이다.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.

호주는 한국의 제 7 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4 대 교역국이다.

이번 FTA 협상 타결로 7 천 3 백만 이상의 소비자를 가진 2 조 8 천억 달러 GDP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.

또한 양국 수출업자들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, 투자 장벽 또한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.

한국 소비자는 소고기, 밀, 설탕, 낙농제품, 와인, 원예, 해산물과 같은 호주 농산품을 보다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.

양국의 투자자들은 보다 증진 된 투자 기회를 누리고, 투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개선 될 것이다.

한호 FTA 는 특히 전문적인 서비스부문, 영화와 방송, 농업 및 자원분야의 연구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